

남원, 한여름밤 '명품 공연' 풍성



24일 ~ 내달 15일까지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서 사철가·진도아리랑·판소리·부채춤 등 다채

8월 15일 월요일 국악관현악과 함께하는 다양한 퓨전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황진이 의 시조를 노래로 만든 '상사몽', 판소리 흥부전 중 박타는 대목을 새롭게 편곡한 '박타령', 드라마 명성황후의 OST '나가거든' 등 스토리가 있는 국악가요와 거문고협주곡을 새롭게 편곡한 '실내악 감상 유월', 사물놀이와 함께 연주하던 태평소 가락을 관현악과 구성한 태평소협주곡 '호적풍류', 꿈같은 선율에 자신모리 장단을 엮은 '실내악 내게 주어진 시간' 등 새로운 프로그램이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특히 8월 3일에는 시원하게 내리는 소나기의 빗물을 설정구 장단으로 표현한 설정구협주곡 '소나기'를 전통타악그룹 통남종과 함께 협연해 여름밤의 열대야를 날려버릴 예정이다.

'한 여름 밤의 소리여행'의 또 다른 명품 공연으로 자리 잡은 '서해연 교수의 한 국가곡과 오페라 아리아의 밤'은 8월 1일 월요일에 펼쳐진다. 이 공연은 서울대 성악과 서해연 교수와 서울대학교 성악과 졸업생으로 국내외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전문 성악 연주로 구성된 아디엘레 성악회가 출연해 관객들에게 깊이 있는 공연을 선사한다. 신이리랑, 아무도 모르고, 꽃구름 속에 등 서정적인 한국 가곡으로 시작해 소프라노의 화려한 고음 이 돋보이는 오페라 '마술피리' 중에서 밤

의 여왕의 아리아와 유쾌하고 신나는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중에서 '축배의 노래' 등 대중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오페라 아리아로 피날레를 준비했다.

8월 4일과 5일에는 한 여름밤의 락 페스티벌이라는 주제로 대구 최고의 4인조 락 밴드 "아프리카", 대전의 정통 하드록 밴드 "프리버드", 남원을 대표하는 블루스 락밴드 "올디스 빗 뉴" 와 전 YB기타리스트 유병일이 이끄는 감성과 열정의 락 밴드 "바스켓 노트" 등이 출연해 락페스티벌을 펼치게 된다.

8월 10일에는 가수 소명, 민지, 진정아 등 남원 출신 대중가수들이 고향무대에서 관객들을 만난다. 이 외에도 국립민속국악원, 남원시립국악단, 전통 타악양상블 흠소리 등 품격 있는 국악공연과 남원의 대표 관광상품 신관사포부임행사, 그룹 T&B의 7080 팝페라, 푸른시절의 통기타와 함께하는 한여름밤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1995년 남원시립국악단의 여름 상설공연에서 시작된 '한 여름 밤의 소리여행'은 해를 거듭하면서 다양한 단체가 참여하는 남원의 대표 관광 상품으로 성장했으며 시민의 문화 향유권 신장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로 4년째 광한투원에서 펼쳐지고 있는 청극 춘향전 '광한투연가Ⅳ' 아예도 내

사람아'는 여름 성수기를 맞아 연장 공연한다. 남원시는 "매주 토요일 저녁 8시 광한투원 수상무대에서 펼쳐지는 청극 '아매도 내 사랑아'를 7월 28일부터 8월 13일까지 3주 동안 목·금·토 연속 공연한다."고 밝혔다.

이 공연은 지난해 누적 관객 3만을 돌파했으며 관객만족도 94.4점에 달하는 검증된 작품으로 올해는 기존 춘향전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삼그럽고 수줍은 열여섯 춘향과 통통의 사랑을 그리고 있다. 또 극사이사이 등장하며 감초 역할을 하는 옛장수와 뽕뽕이 장수는 구성진 사투리와 입담으로 관객들에게 풍자와 해학을 선사한다. 일차원적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번사또 역시 객석에 등장해 익살을 부리며 '취미는 관객 주리 틀기, 특기는 관객 팔기'인 입체적인 캐릭터로 재탄생했다.

이전 시리즈의 장점은 그대로 살려 남원시립국악단 이난초(월매 역), 고현미(월매 역), 조선하(춘향 역), 임현빈(몽룡 역) 등 대통령상을 수상한 명창들이 출연해 판소리의 정석을 선보이며, 웅장한 국악관현악과 화려한 군무로 관객의 눈과 귀를 사로잡고 있다. 이 공연은 춘향전 중에서 두 사람이 만나 사랑에 빠진 곳으로 알려진 광한투원에서 펼쳐져 실제 춘향과 몽룡이 살아 숨 쉬는 듯 캐릭터에 생명력을 불어넣었으며, 광한투원의 야간경관을 극대화한 조형연출 및 무대장치는 관객을 몰입시키기에 충분하다.

관람권은 인터넷을 통해 예매하거나 공연 당일 현장에서 구매 할 수 있으며 관람료는 1만원이다.

/남원=유영철 기자



대한민국 명품공연 완주 온다 '굿 보러가자' 27일 문예회관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공연 '굿보러가자'가 완주에 온다. 완주군과 한국문화재단(이사장 서도식)은 '문화가 있는 날' 일환으로 추진되는 '2016년 굿 GOOD 보러가자' 완주 공연을 27일 완주문예회관에서 공동개최한다고 밝혔다.

'굿GOOD보러가자'는 2004년부터 12년간 전국 중소도시와 문화 소외지역 66곳 이상을 누비며 무형문화재를 비롯한 문화유산과 전통예술을 한 자리에 보여주는 종합공연으로 올해는 완주군을 찾는다.

이번 공연은 長短勝(장단승부), 名人和答(명인화답), 喜樂(희락) 세 주제로 구성되어 있어 풍성한 볼거리와 들을거리가 준비되어 있다.

첫번째 長短勝(장단승부)에서는 한국문화재단 예술단의 오고무와 풍물, '유희 컴퍼니'와 '뿔과 제이'가 선보이는 장단과 탭댄스가 서로 흥겨운 장단 승부를 벌이며, 연희단 샘의 사자춤 또한 볼거리를 더한다.

특히 '굿GOOD보러가자'의 백미인 名人和答(명인화답) 순서에는 안숙선, 김창만, 김일구, 진유립 네 명의 국보급 명인·명고·명창·명무가 완숙한 고풍적 무대를 선보인다.

끝으로 喜樂(희락) 순서에는 中伏(중복)에 더위 대신 福(복)을 퍼주는 흥겨운 줄타기 한 판이 벌어질 예정이다. 특히, 영화 '왕의 남자'로 유명한 권인태 명인의 눈을 땀 수 없는 재주와 웃음 넘치는 재담의 조화가 기대된다.

'2016굿보러가자'는 그동안 보여준 약?무 중심의 무형문화유산에 무예와 영상미디어 등 다양한 요소를 가미하고, 우리지역을 대표하는 전설과 문화의 스토리텔링을 통해 특색 있는 연출로 완주의 문화를 알릴 수 있는 공연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완주=이중복 기자

우진문화재단 우진청년작가전

내달 14일까지 열려



도시이야기 책+혼합재료 이정웅 작.

제4회 우진청년작가전이 21일~8월 14일과 8월16일~31일 2부에 걸쳐 우진문화공간 전시실에서 각각 열린다.

이번 전시에 참여하는 작가들은 우진문화재단 청년작가 초대전에 초청된 바 있는 예술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각자의 개성과 미적 감성을 작품에 투영하며 예측하기 어려운 현대미술과의 조화 및 접점을 탐구해 간다. 또한 회화간 교류를 통해 전복 미술의 공유와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전시공간에는 장르 구분 없이 평면작품 60호 이상과 200이상의 소품, 조각과 공예작품이 함께 전시된다.

7월 21일부터 8월 14일까지 열리는 1부 전시에는 강현덕, 고희성, 김승호, 김관목, 김학곤, 송지호, 양성모, 이은경, 이철규, 이홍규, 장영애 조병철, 조현동, 이호철, 이효문, 최수

/정해은 기자

민속국악원, 26일 '다담' 공연 홍쌍리 명인 초청 '매실이야기'

명사들의 이야기와 국악이 한데 어우러지는 국악 콘서트 '다담'이 26일 오전 11시 국립민속국악원 예음헌에서 열린다.

이날 무대에는 광양 청매실 농원의 홍쌍리 명인이 초청돼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전통방식의 가치와 매실 활용법에 대해 이야기 한다.

홍쌍리 명인은 경상남도 밀양 태생으로, 약 50년 전 광양으로 시집와서 27헥타르의 청매실 농원을 일궈냈다. 이날 홍 명인은 매실 농사를 지으며 자연 속에서 얻은 체험과 전통적인 방식으로 음식을 만들며 쌓아온 경험들을 들려준다.

이와 함께 무대에는 '소리 숲'의 연주도 더해진다. 피리연주자 김지운이 구심점인 소리 숲은 옛 산골 마을의 정서를 노래하는 <산촌>, 엔리케 그라나도스 작곡의(베사메 무츠), 앤드류 보이드의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중<을 아이 애스크 오브 유> 등을 청아한 소리로 연주 할 예정이다.

공연관람은 무료이며, 예약은 국립민속국악원 063-620-2324로 하면 된다.

/정해은 기자



광양 청매실 농원 홍쌍리 명인.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 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lsilab.com/ <2016년 7월 22일>

<p>▷쥐띠 46년생: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다칠 수 있다. 60년생: 세밀함을 요하는 일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좋은 결과를 맞을 수 있을 것이다. 72년생: 구설수에 휘말릴 수 있으니 이성을 주의하라. 84년생: 지나친 욕심은 화를 부르니 매사 70%에 만족하라.</p>	<p>▷소띠 49년생: 자신의 생각만을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니 타인과 상의하고 결정하라. 61년생: 정신적으로 힘든 운이다. 73년생: 어려움이 있어도 귀인이 도움을 줄 것이다. 85년생: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협동하라.</p>	<p>▷호랑이띠 50년생: 중요한 약속은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좋다. 62년생: 다른 사람과 시비가 생길 수 있는 운. 74년생: 자신보다 힘든 상황에 베풀면 덕이 돌아오니 도움을 주면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86년생: 다른 사람과 관계가 틀어질 수 있으니 조심하라.</p>	<p>▷토끼띠 51년생: 상황에 비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는 운이다. 63년생: 예상보다 상황이 쉽게 풀리니 기쁨이 있다. 75년생: 자신의 속마음을 노출시키지 마라. 87년생: 상황에 대해 탄력적인 생각을 가져야 하는 운이다.</p>
<p>▷용띠 52년생: 말을 조심해서 해야 하는 운이다. 64년생: 금전손실이 따르는 운. 76년생: 뒷사람으로 인해 좋은 일이 생기는 운이다. 88년생: 작은 일은 좋은 결실을 볼 수 있으나 분수취의 일은 불리하니 주의하라.</p>	<p>▷뱀띠 53년생: 자비로운 마음으로 행하면 좋은 결실이 따른다. 65년생: 욕심을 버리고 큰일은 삼가라. 77년생: 평소 소홀했던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운. 89년생: 다른 사람으로부터 억압받을 일이 생기니 억울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닌 상황적인 이유에서이니 마음에 담아두지 마라.</p>	<p>▷말띠 54년생: 지갑은 열고 말은 줄이라. 66년생: 뒷사람의 덕을 볼 수 있는 운. 78년생: 건강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운이다. 90년생: 평소 약속했던 일이라 할지라도 실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세심한 검토가 필요 운이다.</p>	<p>▷양띠 55년생: 한쪽에서 막으면 다른 곳에 지출할 일이 발생. 67년생: 다른 사람의 일에 나서지 말고 관망하는 자세로 임하라. 79년생: 주변사람들로 인해 마음상할 일이 발생. 91년생: 점심식사로 인해 소화불량이 생길 수 있다.</p>
<p>▷원숭이띠 56년생: 좋은 문서가 들어오는 운. 68년생: 작은 악힘이 따르니 후반에는 잘 풀린다. 80년생: 어려움이 있다면 이상의 도움을 빌리라. 92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구설수와 시비가 따른다.</p>	<p>▷닭띠 57년생: 그동안 베풀었던 덕이 돌아오는 운. 69년생: 처음에는 악힘이 따르니 후반에는 풀리게 된다. 81년생: 타이밍과 화합이 중요한 운이다. 93년생: 어려움이 있어도 귀인의 도움으로 이겨내갈 수 있는 운이니 염려하지 마라.</p>	<p>▷개띠 46년생: 문서를 주고 받는 일은 좋다. 58년생: 건강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운이다. 70년생: 정신적으로 편안하지 않아 상황판단능력이 저하되니 중요한 결정은 미루는것이 좋겠다. 82년생: 무리하게 투지하거나 추진하지 말고 때를 기다려라.</p>	<p>▷돼지띠 47년생: 다른 사람의 일에 나서지 마라. 59년생: 인정적이지 않은 재물의 유동성으로 인해 어려움이 따르니 주의하라. 71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방해할 사람이 나타난다. 83년생: 좋은일과 어려운일이 함께 발생.</p>